

# 전주씨네투어 × 마중 프로그램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12인 배우와 함께하는 마중초이스·마중토크·마중전시 진행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2025 전주씨네투어X마중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씨네투어X마중은 배우들과 관객,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마중초이스', '마중토크', '마중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가 직접 선정하거나 참여한 영화를 관객과 함께 관람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마중초이스'에는 배우 박지환, 서현우, 차우민, 차정우, 이찬형이 함께한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장이수' 역을 비롯해 강렬한 연기로 대중에게 각인된 박지환 배우는 <집중의 끝>(조성희, 2010)으로, 탄탄한 연기로 인물을 살아있게 하는 '장면을 사는 배우' 서현우 배우는 <갈매기>(김미조, 2020)로, 넷플릭스 시리즈 '멜로루비', SBS '보물섬' 등 대세 배우로 매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차우민 배우는 <양>

단팔 인생 이야기(가와세 나오미, 2015)로 관객과 만난다. 출연작으로 관객과 만나는 차정우 배우는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는 인물 '수현'을 연기한 자신의 데뷔작 '비밀 사이'(양경희, 2025)를, 이찬형 배우는 축구부 에이스 '동현'을 연기해 호평 받은 <빅토리>(박범수, 2024)로 관객을 맞이한다. 5명의 배우가 자신의 선택으로 관객을 마중하는 마중초이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메가박스 4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와 관객이 보다 가까워서 다양한 주제를 소통하는 '마중토크'에는 강유석, 김해연, 서지혜, 성지영, 신동미, 차우민, 차정우까지 총 7인의 배우가 참여한다. 우선, 김해연, 신동미, 성지영, 서지혜 배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장면'이라는 주제로 신·구 여배우들의 다채로운 시선에서 애정하는 장면에 대해 토크를 진행한다. 강유석 배우는 '별날의 유석을 좋아

하세요'라는 주제로 배우로서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거치며 경험한 폭넓은 연기 변주를 관객들과 나눈다. 저스트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차 씨 배우 차우민, 차정우 배우는 '차차 알게 될 거야'로 재치있게 관객과 가까워서 호흡할 예정이다. 마중토크는 5월 2일과 3일 양일간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옆에 마련되는 캐스퍼빌존 내 J스테이지에서 진행된다.

전주를 배경으로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배우 12인의 다채로운 감성을 담아낸 '데이즈드' 화보를 볼 수 있는 '마중전시'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마중전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 1층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12인의 배우와 함께 관객을 맞이할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옛 비룡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남원농악 명인 류명철 기리는 판 열려

진혼의 무(舞) 성황리 개최

남원시는 지난 19일 남원농악 명인 류명철 3주기(사)를 기리는 판, 진혼의 무(舞)를 (사)국가무형유산 남원농악보존회(회장 김정현, 이하 농악보존회) 주관으로 남원농악전수교육관(합파우소리체험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부 회심곡, 2부 진혼의 무(舞)로 구분해 추모사를 시작으로 경기민요의 소리꾼 홍승희 명창의 회심곡과 금과 무용단을 뿌리로 두고 있는 애미아트(Aemiarts)단의 진혼의 무(舞) 공연이 진행되었다.

추모제 이후 사랑의 광장에서 남원농악 공개행사를 오후 2시에 개최, 예능적 요소가 특징인 전곡과 연극적 요소가 특징인 후곡으로 이루어진 남원농악과 각 치배들의 개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놀이를 통해 관객들과 호흡을 함께했다.



남원농악 명인 류명철 3주기를 기리는 판, 진혼의 무(舞)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김정현 회장은 "이 행사는 추모제가 아닌 추모 공연으로 고인을 기리는 한편 더 나아가 남원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5월 역사·문화체험 '풍성'

백제 마을장터 · 야간탐방 · 디지털 미션 체험 등 운영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이 오는 5월 백제시대로 떠나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백제왕궁박물관은 5월 한 달 동안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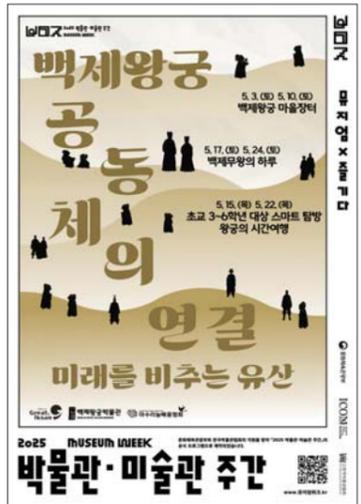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사업 '뮤지엄X즐거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백제왕궁박물관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 주간사업 교육 부문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에 백제왕궁 : 공동체의 연결, 미래를 비추는 유산'을 주제로 세계유산 백제 유적의 가치와 미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단체인 '마수리내배움협회'와 공동 기획했으며, 3가지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5월 3일과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백제왕궁 마을장터'가 열린다. 유리공방, 백제 과일잼 만들기, 빵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연기자(가)가 함께해 고대 마을 공동체의 활기를 재현한다.

이어 5월 17일과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야간 프로그램 '백제 무왕의 하루'가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무왕의 생애와 백제 불교문화를 주제로 사리장엄구 모형을 제작하고, 야경 속 왕궁리오층석탑을 탐방한다.



5월 15일과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왕궁의 시간여행'이 운영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백제 탐험대가 돼 유적 내 숨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문화유산을 학습하는 이색 디지털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4월 21일부터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www.iksan.go.kr/wg)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청년 마이스 서포터즈'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특별자치도의 MICE 인프라와 주요 행사를 매력적으로 소개할 '전북 청년 마이스 서포터즈'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마이스 서포터즈'는 지역 청년들에게 MICE 산업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서포터즈 지원은 5월 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n28@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2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SNS를 활용한 전북 마이스 산업 홍보, △마이스 실무자 특강, △국내 타도시 산업 벤치마킹 현장교육, △타 지역 서포터즈와의 교류 등이다.

또한, 서포터즈에게는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며, 활동 수료증 발급과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모집은 '전북 청년 마이스 서포터즈' 1기 출범으로, 전북 MICE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다. 청년 서포터즈는 전북 MICE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양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 특별전 개막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두 거장, 양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특별전이 전주에서 막을 올렸다.

전주문화재단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20세기 미술의 거장: 양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 개막에 앞서 프리뷰 행사를 열고, 4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프리뷰(pre-view)에는 운동목 전주 부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의원단을 비롯해 백승관(사)한국미술협회 전북지회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전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판화와 아트북을 중

심으로 총 169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현대 회화에서 이들이 남긴 실험정신과 조형적 탐구, 색채에 대한 미학적 성찰을 조명한다. 마티스의 대표작 '재즈 시리즈'를 포함해 대담하고 유희적인 작품들과, 뒤피 특유의 섬세한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전시 해설과 함께 진행된 개막 행사에서는 두 작가의 대표작 세계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강상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체험존에서는 마티스의 컷 아웃(cut-out) 기법을 활용한 창작 체험과 라울 뒤피의 작품을 스탬프로 찍어 미디어에 내란의 작품을 띄워보는 체험도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대아스페이스 기획전 '작별의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오는 6월 1일까지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원 내 숲문화마루 전시실(이하 'JMA 대아스페이스')에서 기획전시 '작별의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JMA 대아스페이스는 매년 도내 중·장년층 미술가의 작품세계와 동시대 담론의 접점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기획전시 '작별의식' 회화와 오브제의 결합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현재를(재-)매개하고, 이를 통해 상실과 애도의 감각을 공유하는 송수미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선보여 온 연작 '나눌 수 있는 호흡'의 모티프와 '작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개인적 서사를 넘어 전북 지역 현대사에 집단적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리여 폭발사고(1977)'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